

반도체/디스플레이

MS-퀄컴 협력은 무엇을 의미할까?

반도체/디스플레이

Analyst 김선우
02. 6098-6688
Sunwoo.kim@meritz.co.kr

MS-퀄컴, 차기 스냅드래곤에서 윈도우 10 구동 위한 협력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MS)는 Windows Hardware Engineering Community event (WinHEC) 행사를 통해 향후 제작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AP에서 윈도우10을 구동하기 위한 양사의 협력 상황을 공개함. 향후 공개될 스냅드래곤 기반의 윈도우10은 x86 기반으로 MS오피스, 어도비 포토샵 및 게임 타이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동하게 됨. 퀄컴은 2017년 초 최초의 스냅드래곤 기반 윈도우10 탑재 PC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참고: 링크1, 링크2).

‘스마트폰의 PC화’ =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장기 성장 동력

향후 모바일 운영체제의 양자구도 (안드로이드 vs iOS)에 윈도우10이 침투해 점유율을 상승시켜 나갈 것이라는 단순한 전망은 무의미 함. 운영체제의 지형도 변화보다는 향후 Tech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내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당사는 ‘정보 획득적 사용처’인 스마트폰이 ‘정보 생성적 사용처’인 PC와 통합되며 3년 내에 현재 600달러 수준인 High-end 스마트폰 판가가 2-3배 상승할 것이라 주장해 음.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폰이 PC 역할을 하기 위한 유일한 Bottleneck은 5인치대의 작은 화면크기인데, 이는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등장으로 해결될 수 있음. ‘플렉서블 스마트PC’가 등장할 경우 1,800달러 내외의 제품가격은 현재 문서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총 비용 2,300달러 (스마트폰 800달러 + 노트북 1,500달러)보다 낮아 구매할 동인이 충분함. 금번 발표된 ARM 기반 스냅드래곤의 윈도우10 구동은 ‘스마트폰의 PC화’로 가는 SW Bottleneck이 해소되는 계기로 판단.

플렉서블 스마트PC의 등장 = 주요 부품수요의 폭발적 성장을 유도

플렉서블 스마트PC로 대변되는 스마트폰의 PC화 과정에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DRAM, NAND는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출하량 측면에서 연간 14억대 이상 판매되는 스마트폰 중 20%만 ‘PC화’를 보일 경우 현재의 PC 시장이 두 배로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부품 사용량을 살펴볼 경우,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의 PC화 과정에서 플렉서블 폼팩터가 채용되며 화면 크기가 3배 이상 성장하게 됨. 이러한 수요 증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더욱 폭발적인데, DRAM 탑재량은 스마트폰 1.9GB 대비 PC 5.1GB로 2.7배, NAND 탑재량은 25GB에서 362GB로 무려 14.5배 증가하기 때문임. 메모리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IoT 가전 등 채용 어플리케이션 범위의 확대 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PC화 과정에서 채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참고보고서

- 1) 혁신이 ‘펼쳐’ 진다. 2016.09.19 (링크)
- 2) 2017년 산업전망 - ‘설마’ 의 역설. 2016.11.25 (링크)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6년 12월 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6년 12월 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6년 12월 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선우)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